

文대통령, 中企人대회 첫 참석... 420명 기업인과 한자리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대통령 참석은 11년 만에 처음
중기업계 일자리창출 주역 염두

문재인 대통령이 시름에 빠져 있는 중소기업인들을 북돋아주기 위해 14일 열린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를 함께했다. 대통령이 외부에서 진행된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한 것은 2008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매년 5월 제주 중소기업주간에 개최하는 중소기업인대회는 89년부터 시작, 올해로 꼭 30년을 맞았다. 200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이후 중소기업인대회는 직전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6년까지 청와대 녹지원이나 영빈관에서 열렸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첫 해인 2017년엔 탄핵과 조기 대선 등 정치 일정 때문에 중소기업인대회가 12월에 열렸었고, 당시엔 대통령이 아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었다. 지난해엔 5월에 열렸던 관련 행사에 남북정상회담 등 외교적으로 긴박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대통령이 아닌 이낙연 국무총리가 함께 했었다.

대선때부터 '중소기업 중심경제'를 강조한 문 대통령이 집권 3년차로 넘어 오면서 중소기업계의 가장 상징적 행사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선언문 발표를 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을 비롯한 협회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 직접 모습을 나타내며 '무한 애정'을 드러낸 것이다.

현 정부들어 청와대는 개별 경제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엔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비공식적으로 밝혔었다. 이런 이유로 경제계의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매년 주최하는 경제인 신년인사회에도 함께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오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기인대회에 참석, 420명 가량의 기업인들과 자리를 같이 한 것이다. 이날 자리엔 주무부처 수장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동행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대회사 모두에 "대통령님께서 취임 후 처음으로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주신 만큼 더욱 뜻이 깊다"는 말로 감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중소기업도 정부에 요구만 하지 않고 스스로 '할 일을 찾고, 만들어가는' 중소기업으로 혁신해 국민에게 사랑받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중소기업계를 향한 문 대통령의 행보는 지난해 12월부터 더욱 본격화됐다.

작년 12월13일 경남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청와대에서만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 (1월7일), '혁신 벤처기업인 간담회' (2월7일),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 (2월14일) 등을 잇따라 열고 소통에 적극 나선 것이다.

이런 와중에도 '메이커스페이스 방문' (1월3일), 'IT혁신과 제조업의 미래 콘서트' (1월29일), '제2벤처붐 확산 전략보고회' (3월6일) 등의 자리에서 제품 체험을 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 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이 특성에 맞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2월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 자리에선 자신을 "골목상인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며 "지금도 골목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의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에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중기인대회에 참석한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경기가 나빠지고, 주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등 여러 이유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이때 대통령의 관련

행사 참석은 큰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대통령께서 지속적으로 약속한 대로라도 잘 살고, 너도 잘 살아 곧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더욱 힘써달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등을 향한 대통령의 연이은 행보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하면 대한민국 일자리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관련 업계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동안은 업계가 대통령을 '러브콜' 했지만 앞으로는 일자리 창출 주역인 이들에게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간파하고 16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자리에서 '우리는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구성원과 성과를 공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앞장선다'는 내용 등이 담긴 중소기업 선언문과 실천강령을 결의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친환경 불연자재 이균길, 車 내장재 이승지 '금탑훈장'

훈장받은 모범中企人 누구

친환경 불연자재를 만드는 서한안타민 이균길 대표와 자동차 내장재 전문기업 에스앤지 이승지 대표가 기업인으로서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6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는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를 담은 '중소기업 선언'과 '실천강령'을 발표하고 적극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 4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중소기업인대회에

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금탑·은탑산업훈장 대상 모범중소기업인 5명에게 직접 포상을 친수했다.

금탑훈장을 받은 이균길 서한안타민 대표는 1983년에 전신인 서한화학을 창업한 뒤 36년간을 불에 타지 않는 내장재 개발에 힘써왔다. 이 대표는 기술투

자와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한 피나는 노력 끝에 국내 최초로 친환경 불연 내장 마감재 개발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본 등에서 수입하던 것을 국산으로 대체한 공로를 세웠다.

이승지 에스앤지 대표는 IMF시절 부도업체를 인수해 회사를 흑자로 전환시킨 후 매출 400억원까지 성장시킨 인물이다. 특히 천연가죽 열융착 라미네이션 공법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 완성차의 프리미엄화에 기여하는 등 산업

경쟁력 제고에 힘써왔다. 적극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투자로 수입에만 의존해 오던 올레핀필름을 국산화하기도 했다. 금탑외에 은탑산업훈장은 평안제관 신정현 대표, 무진기연 조성은 대표, 한울에이치엔피 김도완 대표에게 각각 돌아갔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는 매년 5월 제주주에 열리는 중소기업주간에 열린 행사로 1990년부터 시작, 올해 30회째를 맞았다. /김승호 기자

한국동서발전주

좋은 일자리 창출, 동서발전이 앞장서겠습니다.